

총무원장
자승스님

용산참사현장 방문 유족 위로

취임 후 첫 대외활동...유족들 취임법회 참석
가톨릭 의료시설 등도 방문...관계자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취임 후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용산참사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4일 참사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을 찾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0여 분간 머물며 고인을 위해 분향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먼저 분향소에 둘러 고인들의 영정에 분향하고 발원문을 봉독하며 극락왕생을 빌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발원문에서 “용산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라며 “하루 속히 이 대립과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더불어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용산과 서울을 넘어 이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감동할 때까지 정진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후 분향소 바로 옆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유족들과 면담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발원문에서도 밝혔듯이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기원한다”며 “정부와 유족이 한 발씩 양보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분들의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도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사고 당일 경찰과의 충돌로 숨진 고 양희성 씨의 부인 김영덕 씨는 “11월20일이면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된다”며 “우리는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라고 장례도 못 치른 채 고인들을 병동고에 넣어두고 싸우고 싶겠느냐”며 “종교계에서 힘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 이성수 씨의 부인 권명숙 씨는 “국무총리도 찾아와 추석 전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며 비통해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의 방문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 믿는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장례도 치르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간곡히 말했다.

조희주 용산참사 범대위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4일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는 “한국불교의 큰스님이 관심을 갖고 몸소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불교계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려주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자리에 배석한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5일 취임법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라며 “조계종은 여러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쓸 것”이라고 위로했다.

유족들의 호소를 주의 깊게 들어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히려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뭉조리 잘 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세영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도 동참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가톨릭 의료시설인 ‘요셉의원’과 불교계 노숙자 재활시설인 ‘보현의집’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용산참사 유족들은 지난 5일 총무원장 스님의 취임법회에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장영섭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 각계 축하메시지(전문)

“불교발전에 큰빛 더해 주시길”

“취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법전 종정예하와 원로 고승대덕 스님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자승스님께서 불교계 내외의 존경과 기대 속에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님께서 그동안 종단의 발전과 불교의 중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스님은 불교계의 대승적 추대를 통해 선출되었고, ‘열린 종단, 청정 종단’ 실현을 공약하는 등 화합과 변화를 이끈 책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융화합의 큰 원력을 지닌 스님께서 취임한 것은 조계종단의 발전은 물론 불교계가 더욱 화합하고 융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세계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천재일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갈등과 대립을 조화롭게 극복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이 시급한 때입니다. 서로 차이를 넘어 널리 화합을 이루라는 불교의 원융무애(圓融無碍) 사상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승적 통합과 상생의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대자비(大慈悲)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해 나가시겠다는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식을 높이고 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화합과 협력의 문을 열 때입니다. 원융무애와 상생의 정신을 지표로 삼아 선진일류국가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자승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불교의 발전에 큰 빛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3년 11월 5일

대통령 이명박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자승스님의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로 많은 이들이 영성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총무원장님께서 불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바른 가치를 일깨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마다 영적인 길에 정진하고 있는 종교인들, 특히 불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인류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애쓰신 지관스님께도 인사를 전하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조사국장-선웅스님 상임감찰-덕림스님 총무원 국장급 추가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4일 신임 호법부 조사국장에 선웅스님, 상임감찰에 덕림스님을 임명했다. 신임 조사국장 선웅스님은 1988년

선웅스님 덕림스님
본선사에서 윤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범주사

총지선원, 영축총림선원, 대흥사 동국선원, 벽송사 벽송선원 등에서 수선안거했으며 포교원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다. 상임감찰 덕림스님은 1991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주 남국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익산 관음사 주지로 일하고 있다. 장영섭 기자 tuel@ibulgyo.com

현장에서

흑산도 ‘비구니 스님’

군포 범해사 주지 영경스님은 얼마 전 도반스님과 흑산도에 다녀왔다. 간만에 떠난 흥도여행이 날씨 때문에 진입이 어렵자, 예정에 없는 흑산도에 머물게 됐다고 한다. 스님은 흑산도에서 만난 한 비구니 스님 이야기를 털어놨다. 울진 석남사 출신의 50대 후반 비구니 스님은 기독교세가 왕성한 흑산도에서 ‘나홀로 불사’를 펼친다고 한다. 가슴이 저미는 이유는 불사 방식이다. 스님은 날마다 흑산도 터미널에 나와 대합실을 청소하고 오고 가는 이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보시하면

서 불사금을 ‘탁발’ 한다. 150여명의 도민들이 살고 있는 흑산도에 반듯하고 화려한 교회와 성당이 10여곳이 넘는다고 한다. 절이라고 알려진 곳이 세군데 있지만 점집을 방불케 하고 그나마 비구니 스님이 불사중인 ‘관음사’가 유일한 정도다. 가람불사를 마치려면 아직 산 너머 산이다. 비구니 스님이 가사를 수하고 터미널 대합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그토록 ‘어려운 불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영경스님은 “연간 흥도를 찾는 관광객이 수만명에 달하는데,

흥도에 가려면 누구나 흑산도를 거쳐야 한다”며 “가득고 일색인 흑산도에 법당 기와가 하나라도 보이면 불자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며 부처님을 친견하겠는가. 그 비구니 스님의 이같은 말에 수긍이 가더라”라고 말했다. 스님은 당장 기와불사를 도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자든, 스님이든, 종단이든, 누구든 마음을 내줘야 한다며 울먹였다.

하정은 기자

tornato77@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통 화합 그리고 희망’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종단운영을 위한 6대 기조’ 중 “6. 교권확립을 통해 국내외 한국불교 위상확대”와 “13대 정책 공약” 중 “13. 세계 속에 한국불교 위상강화”는 총무원의 해외사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대한 제 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원력과 의지에 뉴욕 불교사무원연합회와 뉴욕불교신도회가 함께 동참합니다.

뉴욕불교사무원연합회 회장 원영

뉴욕불교신도회 회장 김정광

Bodhi Mind Zen Center 1367 Teaneck Rd. Teaneck, NJ 07666 U.S.A

phone : 201.833.0633 E-mail : nyborisa@yahoo.com